

어린이 책꽂이

▲이태영=어린이들에게 꿈과 도전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한 '위대한 도전 한국인' 시리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여성 인권운동의 어머니 등 수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는 이태영 여사의 일대기를 그렸다.
(뜨인돌 어린이·8천500원)

▲수학이 숨어있는 명화=달리의 '코끼리를 비추는 백조', 고흐의 '해바라기' 등 거장들의 명화에 숨어 있는 수학적 요소들을 보여준다. 주인공 캐릭터들의 여행과 흥미로운 학습활동을 통해 명화속에 숨겨진 조화와 통일, 균형과 비례 등 수학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시공아트·9천500원)

▲터키에서 보물찾기=보물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알아가는 '세계탐험 만화 역사상식' 시리즈.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역사를 이어받은 나라이자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해 동·서양의 문화가 집결된 터키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세상을 바꾼 과학천재들='과학동아'에 연재됐던 만화를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엮었다. 발명가 에디슨, 세계적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 등 천재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도서출판 산하·9천원)

▲중학생이 되기전에 꼭 읽어야 할 만화한자 교과서=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중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900자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한자어, 고사성어 등 208개의 단어가 소개돼 있다. (스콜라·1만1천원)



여성의 욕망 꺾은 남자 돈 주앙

스페인 세비아의 돈 주앙 동상

돈 주앙의 잃어버린 일기 더글러스 에이브람스 지음

카사노바와 함께 세기의 바람둥이로 불리는 사람은 돈 주앙이다. 그런데 카사노바가 18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일생의 3분의2를 여행으로 보냈던 귀족이었고 회상록까지 남겼던 반면, 스페인 사람으로 알려진 돈 주앙은 실존 인물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돈 주앙은 16세기 스페인 극작가 몰리나의 희곡 '세비아의 탐아와 석상의 초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몰리에르의 희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바이런의 시, 아폴리네르의 소설 등 80편이 넘는 작품의 소재가 됐다. 최근에는 프랑스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유명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그는 실존 인물일까.

만약 일기를 남겼다면 그가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더해질 것이다. '돈 주앙의 잃어버린 일기'는 이같은 가정 하에 쓰여진 소설이다. 저자인 더글러스 에이브람스의 첫 소설임에도 작품은 세계 25개국에 판권이 팔렸을 정도로 출간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이유는 이 소설과 저자를 발굴한 에이전시가 세계적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를 기획했던 샌포드 그린버거이기 때문이다.

소설 첫 머리의 에디터 노트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실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편집자로 일했던 저자에게 발송인을 알 수 없는 우편이 도착한다. 스페인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1593년 세비아에서 쓰인 돈 주앙의 일기였다. 필리페 2세가 통치하던 당시 스페인은 잦은 전쟁

400년만에 발견된 일기 토대

인간적 '탐아' 파란만장한 삶 복원

과 식민지 개척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죽는 탓에 파부나 버림받은 여성들이 넘쳐났다고 설명한다. 일기가 쓰여진 시기는 돈 주앙이 36살이던 때. 소설 속 화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하는 걸 보니 어느덧 나이가 든 것 같다"며 "열정의 기술과 여성의 성스러움에 대해 배운 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일기를 쓴다고 말하고 있다.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권을 누리며 잘 알게 된 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저자는 소설 집필을 하는 4년 동안 세비아를 수차례 방문한 것은 물론, 돈 주앙이 익혔다는 설정된 검술과 춤을 직접 배울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집필 과정은 홈페이지(www.lostdiaryofdonjuan.com)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또 다른 묘미는 16세기 스페인의 풍경에 대한 묘사. 알카사르 왕궁과 히랄다 종탑, 대성당, 구시가지의 골목 등이 마치 다녀온 사람이 쓴 것처럼 묘사돼 있다.

대개 냉정한 바람둥이로 등장하는 돈 주앙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사랑에 빠질 줄 아는' 인간적인 면이 부각된다. 많은 여성들과 육체적 사랑을 나누면서 모두에게 충실하려는 모습이나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종교재판과 싸우는 모습은 돈 주앙의 캐릭터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는다. 특히 돈 주앙의 약행에 피해자로 종종 등장하는 장군의 딸이나 아가씨와의 사랑은 돈 주앙을 빈번에 빠져들게 한다.

아니러니하지만 저자는 한 인터뷰에서 "한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쾌락을 즐기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고 밝혔다. <랜덤하우스·1만3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황광우 '젊음이며,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6월 한창 20주년을 맞이하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땅찮아 마음이 매우 헛헛하던 차에 우연히 황광우의 '젊음이며,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창비)를 손에 들게 되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추적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광주항쟁이 일어난 1980년부터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까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리한 고난의 기록이다.

처음에는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라 역사의 외침' 등 80년대의 빛나는 사회과학 필독서를 펴낸 저자의 책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펼쳐 들었는데, 결국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고 말았다.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책의 내용이 결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고 마치 내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다.

저자는 나와 같은 58년 까이다. 나는 유신하의 치욕스런 시기에 대학을 다니며 낭만보다는 분노를, 희망보다는 좌절을 느꼈다. 대학시절 내내 강의실보다는 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동아리의 토론에 기대어야 했다. 반독재 유인물을 뿌렸다고 연행되기도 했고, 1980년에는 포고령 위반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야 광주의 진실을 일부라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감옥 동기'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



이 책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져간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 우리가 받았던 고문은 인간 대접이 아니었다. 고문을 받을 때면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짐승이더라도 그렇게 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요즘도 힘들어 때마다 먼저 간 이들을 생각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다가 정작 자신의 꿈은 펼쳐 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승을 하직할 그들이 지금도 나의 뒷담미를 잡고 있다. 아니, 두 눈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되새겼다. 정치판은 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분탕질을 하는데도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민사회의 성숙 덕분일 것이다. 저자처럼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6월 항쟁의 성공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각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책의 후반부는 공장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글을 읽으면서 80년대의 노동자들의 수기가 생각났다. '어느 풀밭의 외침'(유명우), '빠앗긴 일터'(장남수) 등의 책은 그 시절 잘나가던 베스트셀러 소설들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내가 비록 고생을 했다지만 이 수기 주인공들과는 비가지도 못할 정도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심장이 불끈불끈 뛰었다' 지난 시절 젊은이들의 생생한 삶을 접한다면 보다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리라 굳게 믿는다. 정말로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머지않아 그들이 이 책을 내 인생의 한 편으로 꼽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해본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소외된 자들 통해 삶의 연민 파헤쳐

우렁각시는 알까? 이동하 지음

소설가 이동하씨가 '문 앞에서'(세계사) 이후 10년 만에 단편소설집 '우렁각시는 알까?'를 내놓았다.

10년 만에 단행본을 출간했다는 것은 다작보다는 내실있는 작품에 주력해 온 저자의 면모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이번 소설에서도 특유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 탄탄한 문장력이 돋보인다. 단편 10편이 실려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개 남무하고 소외돼 있다. 표제작 '우렁각시는 알까?'에는 노모와 함께 소도시에서 사는 택시 운전자, '남무한 꿈'에는 정년퇴직된 뒤 가족의 체제를 바라보는 가장, '누가 그를 기억하랴'에는 평범하게 살다 아파트 붕괴로 아이없이 죽는 남성 등이 등장한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삶에 대한 달관과 연민의 시선을 드러낸다. 문학평론가 박철화씨는 이 책을 두고 "함께 고단한 삶을 살아온 동세대에게 바치는 작가의 따뜻한 헌사(獻辭)"라고 밝혔다. <현대문학·9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건 좋은' 남자 어떻게 선별하나

여자생활백서 시즌2... 안은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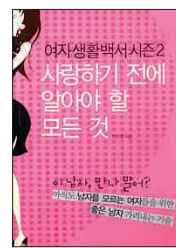
여성 관련 서적 붐을 주도한 '여자생활백서'의 안은영씨가 두 번째 책 '여자생활백서 시즌2-사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펴냈다.

첫번째 책이 인생, 결혼, 일, 성공, 돈 등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데 반해 이번 저서에서는 연애와 남자 문제를 포함한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남자들에게 속거나 상처받지 않는 법', '외모만으로 그 남자를 파악하는 법', '진짜 '조건 좋은' 남자 선별하는 법', '내 스타일에 맞는 내 남자 만드는 법', '나쁜 남자, 피하거나 유혹하는 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경험을 소재 삼아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며 '이런 남자 VS 저런 남자' 코너를 마련, 반대 성향의 두 남자를 비교·분석했다. 또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트 팁'도 눈길을 끈다. <해냄·1만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로템갤러리 Gallery RODEM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찾아오시는 길, 1기독방형, 1기독방형, 대표전화: (062) 653-4022, 문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세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